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20일(금)

## 윤석열 대통령,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

- 양국 원전 협력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과학기술·인프라 협력도 강조 -
- 양국 기업인 등 470여 명 참석, MOU 14건 체결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20, 금)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 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끝>